

##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박 효 근

### I. 들어가며

1555년 5월 16일, 주네브 모처에서 저녁 식사 회동이 있었다. 도시방위군 총사령관(capitaine général) 아미 페랭(ami Perrin)과 시의원 피에르 방델(Pierre Vandel)이 주도한 회합의 분위기는 최근 주네브 시의원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해볼 때 그다지 화기애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1555년 2월 실시된 선거에서 소위 ‘페랭파(Perrinistes)’라 불린 주네브 토박이들은 ‘칼뱅파’라 불리는 상대 진영에게 일격을 당했기 때문이다.<sup>1)</sup> 식사 이후 회합의 참여자들은 술에 취한 채 거리를 거닐며 시끄럽게 떠들었고, 욕을 내뱉는 등 불만스러운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 페랭파 무리의 일원

1) 주네브는 4명의 행정장관(Syndics)과 21명 내외의 위원(Conseiller)으로 구성된 소의회(Petit Council)가 시정의 중심을 담당했다. 주네브에서는 매년 소의회 위원을 뽑는 선거가 열렸는데, 시민들의 모임인 일반의회에서 직접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0인회라는 조직의 투표로 선출되었다. 200인회 역시 그 이전 해 200인회가 그 다음 해 200인회 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네브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정치에 바로 반영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네브의 모든 시민과 부르주아들이 모인 일반의회에서는 재무관(treasurer)과 치안감독관(lieutenant)만을 직접 선출했다. 200인회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이라 주네브 지도층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 실제로 상당히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1555년 선거에서도 소의회를 구성한 27명 중 강경 칼뱅파가 12명, 강경 페랭파가 7명이었고, 8명은 중도파에 해당했다. 그러나 4명의 행정장관이 모두 칼뱅파였기 때문에 칼뱅파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1555년 선거와 주네브 시의회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William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pp. 189-192.

##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이던 뱃사공 프랑수아 콩파레(Francois Compartet)와 마침 길을 지나던 클로드 뒤몽(Claude Dumont)이라는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뒤몽은 칼뱅파 인사인 소의회 위원 장 페르네(Jean Pernet)의 하인이었고, 역시 칼뱅파이자 행정장관(Syndic)인 앙리 오베르(Henri Aubert)의 집에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다.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페랭파와 칼뱅파 측근 두 사람 사이의 시비는 결국 폭력적으로 번졌고, 콩파레의 공격에 뒤몽이 상처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페랭파와 칼뱅파 유력자들이 직접 총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현장에 나타난 페랭파 오베르는 은근한 반목을 드러냈다. 페랭은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오베르가 가지고 있던 행정장관 단장(短杖)을 낚아채 직접 휘두르는 등 오베르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데 더 관심이 많아 보였다. 결국 또 다른 행정장관인 피에르 보나(Pierre Bonna)의 제안으로 관계자들 모두 시청에 가서 오해를 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칼뱅파와 페랭파 사이 불협화음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고, 모두가 걱정한 대로 양진영 열혈파들이 무장한 채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일촉즉발의 대규모 폭력 사태가 터지기 직전, 양 파벌의 주역들은 내일 공식 회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결정했고, 다행히도 몰려든 군중들을 무사히 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폭동(soulèvement)’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까 싶은 1555년 5월 16일의 ‘충돌(échauffourée)’은 예상과는 달리 주네브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다. 막상 이 사건에서 양쪽 모두 사상자는 거의 없었고, 처음 공격당한 뒤몽의 부상도 깊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의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칼뱅파 측은 이 폭동을 상대방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인식했다. 이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주네브 시의회의 중심인 소의회(Petit Conseil)에서 칼뱅파 위원들은 페랭이 오베르의 행정장관 단장을 빼앗은 행위를 집중 공격했고, 이를 빌미로 페랭을 비롯한 페랭파 핵심 인사 7명의 소환을 명령했다. 그런데 이에 맞서 페랭파 그 동료들은 초강수로 대응했다. 소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네브를 떠나 베른으로 망명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베른의 힘을 빌려 칼뱅파가 장악한 시정부를 뒤엎고 주네브의 실권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시도했다. 이는 오히려 칼뱅파가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칼뱅파는 이들의 망명을 반란의 증거로 삼아 궤석재판을 통해 주동자 전원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그동안 칼뱅과 대립했던 페랭과 핵심 인물들 상당수를 모두 추방했다. 간단히 말해, 1555년 5월 16일 폭동을 계기로 칼뱅과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히 주네브의 토박이 세력인 페랭파를 섬멸해버렸다.<sup>2)</sup>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가벼운 충돌이 불러일으킨 거창한 결과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 특정 지역의 토박이 세력이 외부에서 유입된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밀려나는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16세기 주네브에서 토박이 세력인 페랭파는 어쩌다가 이주민인 칼뱅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게 이렇듯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것일까?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주네브 종교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일별해보도록 하겠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가로지르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은 주네브는 전통적으로 영주-주교의 지배를 받았던 주교좌 도시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설치한 정기시(fair)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였다. 그런데 15세기 리옹에 정기시가 열리면서 주네브는 밀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네브 정기시는 독일과 스위스 지역 상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로컬 마켓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주네브에서 스위스 연방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계기가 되었고, 1535년 결국 사부아공국의 영향력 아래 선출되던 영주-주교를 몰아내고 독립하기에 이른다. 정치적 이유로 영주-주교를 몰아낸 만큼 가톨릭교회와 함께 할 수 없었기에, 주네브는 당시의 추세를 따라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초빙한 인물이 바로 장 칼뱅이었다. 칼뱅은 주네브 시당국과 큰 갈등을 일으켜 한때 추방되기도 하지만(1538), 1541년부터는 다시 주네브로 돌아와 1564년에 이르기까지 주네브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칼뱅은 종교개혁 이후 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개혁가였으므로, 그는 주네브목사회와 치리회 조직을 기반으로 주네브를 ‘신의 뜻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접한 주네브 사람들은 칼뱅이 제시한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칼뱅이

---

2) 1555년 폭동과 칼뱅파의 승리에 대해서는 Isabella M. Watt, Thomas A. Lambert (vols. 1-5), Jeffrey R. Watt (vols. 6-17) and M. Wallace McDonald (vols. 2, 9), eds.,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Geneva: Droz, 1996-2023), vol. 10, ix-xx (이하 *R\_Consist.*로 약기).

##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주네브에 다시 정착한 1542년 이래 수많은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1550년대 초부터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이 주네브에 모여들게 되면서 거주민과 이주민들의 갈등 또한 표면화되는 중이었다.<sup>3)</sup>

따라서 1550년대 주네브에서는 칼뱅이 주도하는 치리회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엄격하다는 불만이 많았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공격이 수시로 행해지는 등 일종의 ‘제노포비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도시의 환경은 토박이들인 페랭파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았고, 실제로 1552년과 1553년 선거에서 페랭파가 더 유리한 고지를 잡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5년 선거에서 페랭파는 일격을 당했으며, 궁극적으로 몰락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자들은 페랭파의 몰락을 어떻게 설명해왔는가? 상당히 오랫동안 주네브의 종교개혁은 주로 교회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의 관심사였다. 따라서 주네브 종교개혁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 사료는 보통 칼뱅의 설교집이나 성경 주석서들이었고, 그나마 연구자들이 사용한 일차 사료들은 칼뱅의 지도 아래 작성된 연대기들이었다. 따라서 페랭파에 대한 평가 역시 지극히 칼뱅의 관점에 경도되어 있었다. 칼뱅은 페랭파가 부도덕하고 신앙심이 부족한 집단이라 일갈했고, 따라서 오랫동안 그들은 문란하고 제멋대로인 집단, 즉 리베르탱(libertin)이라 낙인찍혀왔다. 따라서 종교개혁사에서 페랭파의 몰락은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칼뱅파의 신정정치를 한 차원 더 강화시킨 계기라 해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칼뱅파의 승리를 종교개혁적,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기득권층 사이의 파벌싸움이나 거주민/이주민 사이의 갈등이라는 정치사적, 이주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필자 역시 이 관점에 동의하며, 페랭파의 몰락을 토착세력이 밀려나고 이주민 세력이 새로운 지배층에 합류한 보기 드문 역사적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sup>4)</sup>

3) 주네브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박효근, 「주네브, 유토피아를 꿈꾸다」, 『서양중세사연구』, 46(2020), 58-59쪽.

4) 윌리엄 내피는 종교개혁 연구자들이 칼뱅의 설교나 편지에만 의지하고 중립적 사료를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내피는 이런 편향성이 거의 없는 학자는 로버트 킹던(Robert Kingdon)과 윌리엄 몬터(William Monter) 정도라고 지적했다. 주네브 종교개혁 연구사 속 편향성에 대해서

이를 고찰하기 위해 2장에서는 아미 페랭과 ‘주네브의 아이들’이 형성된 계기라 볼 수 있는 ‘파브르 가문’ 사건을 추적해보고, 3장에서는 16세기 주네브 토착민 사이에서 발생한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사건과 3장에서 다룬 사건의 비교를 통해 페랭과 실패와 칼뱅과 성공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주민이 중심이 된 칼뱅파의 승리는 과연 지속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는 주네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 II. 아미 페랭과 ‘주네브의 아이들(Enfants de Genève)’의 형성

역사적으로 볼 때, 주네브는 ‘파벌(factions)’의 도시였다. 영주-주교가 주네브를 다스리던 시절에는 사부아 공국을 지지하는 파벌(Mammelukes)과 스위스 동맹을 지지하는 파벌(동맹파, Eidguenots)이 다투었고, 1536년 주네브 공화국 건립 이후에는 베른 지지파(Articulants/Philippes)와 중도파(Guillermins/Farets)가 대립했으며, 1541년 칼뱅 부임 이후에는 칼뱅 지지파(Calvinistes)와 반대파(Perrinistes)가 공화국의 주도권을 놓고 싸웠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와 독일의 영향을 모두 받는 문화적, 지리적 경계에 위치한 인구 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국가 주네브에서 파벌의 형성과 이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 숙명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주네브 사람들은 파벌 간 충돌과 폭동이라는 현상에 비교적 익숙한 편이었고, 잦은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역동적 선거제도와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sup>5)</sup> ‘주네브의 아이들’이라 불리던 페랭파 역시 주네브에서 생성하고 소멸한 다양한 정치적 분파 중 하나였다. 주네브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은 종교

---

는 Naphy,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pp. 1-9. 참고.

5) 주네브는 매년 2월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새롭게 개편했다. 주네브의 핵심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1540년의 개편을 기준으로).

- 일반의회(Conseil Général) 주네브의 모든 시민 참여.
- 200인회(Conseil de Deux Cents): 기존의 200인회가 새로운 200인회 위원 선출.
- 60인회(Conseil de Soixante): 소의회 25명+200인회 중 35명 추가, 200인회에서 선출.
- 소의회(Petit Conseil) : 행정장관(Syndics) 4명+소의회 위원(Conseiller) 21명, 200인회에서 선출.

##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개혁 이전부터 주네브에 존재하던 일종의 스포츠클럽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도시로서 주네브에는 시민군 조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활이나 석궁, 또는 화승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끼리 사조직을 만들곤 했다. 이런 조직은 주로 미혼의 남성들로 구성되었으며, 자신들끼리 유니폼을 맞춰 입고 친분을 과시하거나 실력을 겨루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도시에서 무기를 든 미혼남성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항상 시끄러운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이런 사조직들은 시당국의 감시와 경계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주네브의 아이들’은 종교개혁 이전 이미 해체되었고, 도시방위군 체제로 개편되어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주네브의 아이들’은 많은 주네브의 젊은 남성들에게 나름 소속감과 일체감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여전히 비공식적으로나마 남아있는 상태였다.<sup>6)</sup> 아미 페랭이 도시방위군 사령관직을 오래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아미 페랭 역시 ‘주네브의 아이들’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 조직을 통해 주네브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미 페랭(1500-1561)은 1527년 27세의 약관의 나이에 200인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주네브 정치무대에 데뷔했다. 페랭은 확고한 동맹파로, 1535년 동맹파의 승리 이후 1537년 재무관(trésorier)으로 선출되는 등 그의 정치적 미래는 밝아보였다. 그런데 1535년 독립 이후 주네브는 독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웃 도시 베른의 영향력 확대를 놓고 장 필립(Jean Philipe)이 이끄는 친 베른파와 미셸 세트(Michel Sept)가 이끄는 반 베른파로 갈라져 대립하는 위기가 도래하였다. 장 필립은 주네브 민병대의 수장으로 영주-주교를 몰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으나, 베른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가 결국 주네브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대중적 경각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결국 1540년 6월 5일 반 베른파는 친 베른파가 주네브를 베른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혐의로 친 베른파의 수장 장 필립을 고발했고, 이는 대규모 유혈폭동으로 번져 결국 장 필립과 그 수하들이 목숨을 잃고 몰락하기에 이른다.<sup>7)</sup>

6) 주네브의 아이들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R\_Consist.*, vol. 15, pp. 411-412. n. 239.

7) 1540년 폭동에 대해서는 E. W. Monter, *Calvin's Geneva* (Huntington: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5), pp. 67-70.

1540년 폭동 당시 아미 페랭은 반 베른파의 리더 미셸 세트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페랭은 열정적인 성품에 화술이 좋고 군중을 뒤흔들 줄 아는 기술을 지닌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는데,<sup>8)</sup> 평가에 걸맞게 페랭은 1540년 폭동 당시 큰 부상을 입기도 했고, 추후 칼뱅의 귀환을 설득하기 위한 사절의 대표가 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나아가 페랭은 악화된 베른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1544년에 친 베른파 일부를 다시 주네브로 받아들이는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는 도시의 정치적 안정과 외교적 연대를 회복시킨 중요한 성과라 인정받았다.<sup>9)</sup> 그 결과 아미 페랭은 1542년부터 1555년까지 13년간 행정장관 3회(1545년, 1549년, 1553년), 그리고 위원 10회를 역임하며 주네브 정치의 핵심인 소의회 위원직을 놓치지 않았고, 1544년부터 1555년까지 주네브 도시방위군 총사령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sup>10)</sup>

이렇듯 커진 영향력 때문이었을까, 아미 페랭과 그의 동료들은 서서히 하나의 새로운 당파로 부상했는데, 그들은 페랭파(le parti perrinste) 또는 ‘주네브의 아이들(Enfants de Genève)’이라 불렸다. 이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영주-주교의 지배에 맞서 주네브 공화국 건설에 앞장선 스위스 동맹파 소속이지만 베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막고 주네브의 독자적 생존을 강조했던 계열의 인물들로, 오랫동안 주네브에 살아왔지만 공화국 건설 이후에야 주네브의 주도적 세력으로 떠오른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원래 그들은 칼뱅의 귀환에 적극적이었으며 칼뱅이 베른파 구분되는 독자적 노선을 통해 새로운 교회개혁을 시도하는 것을 환영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칼뱅이 조직한 치리회(consistoire)가 새로운 규율 시스템을 설립하며 자신들의 오랜 전통과 특권을 침범한다고 파악한 이들은 치리회가 주네브 시민들의 권리를 위반한 초법적 기관이라 규정하고, 치리회의 소환에 불응하며 목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불쾌감을 숨기지 않기에 이른다.<sup>11)</sup>

---

8) Amédée Roget, *Histoire du peuple de Genève depuis la réforme jusqu'à l'escalade* (Geneva: John Julien, 1881), tome. 2, p. 108.

9) 반 베른파의 수장이던 미셸 세트와 아미 포랄, 그리고 클로드 베르탕 등이 1544년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친 베른파 세력과의 화해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는 1544년 이후 아미 페랭이 주네브 정치의 명실상부한 중심축으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 Monter, *Calvin's Geneva*, p. 74.

10) Roget, *Histoire du peuple de Genève*, tome 2, p. 122.

11) *R\_Consist.*, vol. 2, p. 83, n. 272.

##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칼뱅과 페랭의 불화의 시작이자 페랭파가 정치적 분파로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으로 1545년 시작되어 3년 이상 지속된 칼뱅파 파브르 가문파의 갈등을 들 수 있다. 파브르 가문의 가장 프랑수아 파브르(François Favre)는 부유한 직물상으로, 1526년부터 1537년까지 소의회 위원을 역임하며 주네브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유서 깊은 동맹파의 일원이었다. 그런데 프랑수아 파브르의 영향력은 단순히 재력과 정치력을 뛰어넘어 혈연을 통해 결집되어 있었다. 주네브처럼 작은 도시에서 몇몇 가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해지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으므로, 도시에서는 단일 가문이 소의회를 좌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제 또는 부자가 동시에 소의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프랑수아는 이 조항에 사위는 포함되지 않음을 활용해 이 규칙을 교묘히 피해갔다. 실제로 1553~1554년 그의 사위와 아들을 합쳐 프랑수아 파브르와 가까운 혈연관계인 7명이 동시에 소의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sup>12)</sup> 따라서 파브르 가문은 주네브의 실권을 잡고 있는 핵심 토박이 집단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프랑수아 파브르의 사위 중 하나가 바로 아미 페랭이었다.

그런데 1545년 12월 3일 치리회 회의록에는 파브르 가문의 중심 프랑수아 파브르와 그의 아들 가스파르(Gaspard)가 치리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등장한다.

1545년 12월 3일, 프랑수아 파브르

프랑수아 파브르는 여전히 출두하지 않고 있음. 그의 아들 가스파르 모두 마찬가지임. 이미 여러 번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리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음. 이에 대해 우리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해당 사항을 법원에 보고할 것임.<sup>13)</sup>

사실 프랑수아 파브르는 자부심이 강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인데다 호색가로도 이름이 높았다. 당시 그가 시중드는 하녀를 임신시켰다는 풍문이 돌았고, 따라서 치리회는 이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프랑수아와 그의 아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수아와 가스파르는 모두 치리회의 소환을 계속 거부해왔다. 결국 몇 번의 거부 끝에

12) Monter, *Calvin's Geneva*, p. 85.

13) *R\_Consist.*, vol. 2, p. 83.



1546년 2월 25일 치리회에 나타난 프랑수아 파브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손한 언사를 일삼았고, 장로들 앞에서 대놓고 “치리회는 주네브 사법체계와 무관한 또 다른 종류의 법정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sup>14)</sup> 그런데 치리회의 조사 결과 프랑수아 파브르는 문제가 되었던 하녀 외에도 유부녀를 포함한 두세 명의 여성을 더 임신시켰으며, 이 때문에 프랑수아의 부인 역시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명백한 간통죄에 해당하므로, 프랑수아 파브르는 치리회 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정식으로 사법당국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투옥 등 처벌이 명백해지자, 프랑수아 파브르는 베른 관할의 루스(Ruth) 지방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도피해버렸다.

파브르 집안과 치리회 사이의 악연은 프랑수아로만 끝나지 않았다. 프랑수아의 아들 가스파르 역시 아버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1546년 3월 4일, 가스파르 파브르

왜 치리회에 소환되었는지 아냐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함. 법원(Conseil)의 명령에 따라 온 것 뿐이라 말함. 그가 왜 감옥에 수감되었는지 아냐고 물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대답함. 이에 치리회 장로들은 그를 혼계하며 이는 모두 불복종 때문이라 지적함. 또한 장로들은 가스파르에게 그가 행정장관이 되면 도시에 집창촌을 만들 것이라 말했는지 질문함. 그는 이를 부정함. 그러면서 가스파르는 그는 행정장관에 게만 대답할 것이며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함. 칼뱅이 왜 목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는 행정장관 등 부르주아와 시민의 대표에게만 대답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서만 [사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목사들은 이에 권리가 없다고 주장함.<sup>15)</sup>

프랑수아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가스파르도 치리회가 시민들을 소환해 질의하고 판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겼다. 칼뱅이 주네브에 정착한 초기 시절, 토박이 시민들은 주교-영주를 몰아내고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 된 자신들이 왜 이런 낮은 이방인 목사가 이끄는 신생 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그들은 주네브에 종교개혁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칼

---

14) *R\_Constist.*, vol. 2, pp. 146-147.

15) *R\_Constist.*, vol. 2, p. 157.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나 치리회가 종교개혁 이전에 주네브에서 널리 통용되던 관례를 따르지 않고 교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침을 제시하자, 이에 치리회의 민중교회방식이 과도하며 월권이라는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파브르 가문과 치리회의 갈등은 바로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가스파르 파브르의 행동 역시 이런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미 치리회와 악연을 맺었던 가스파르는 이때로부터 한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던 같은 해 4월 26일, 부활절 성찬식이 열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구주희(九柱戲)<sup>16</sup>를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고발되었다. 가스파르는 언제나처럼 치리회 소환을 계속 거부했고, 6월 17일에야 간신히 출석했을 때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칼뱅을 경악하게 했다.

1546년 6월 17일, 가스파르 파브르

생 제르베 근처 공원에서 [구주희를] 즐겼는지 질문함. 가스파르는 이를 인정함. 치리회는 신도들이 모여 성찬식을 하고 있을 때 이에 참석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음을 훈계함. 그는 이것이 신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또다시 칼뱅에게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함. 가스파르의 발언이 너무나 불손했으므로 칼뱅은 그에게 “우리는 당신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경고했으나, 그는 [칼뱅이] “모두의 위에 있으려 한다”고 말함. 이렇게 불손하게 말하면서 가스파르는 제멋대로 회의장을 떠나버렸음.

의견: 치리회 위원들 모두 내일 법원에 출두하여 그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청원하기로 함.<sup>17</sup>

가스파르 파브르는 이 일로 인해 10일간의 구류형에 처해졌으나, 날짜를 다 채우지 않고 출소했다. 이는 주네브 시의회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던 프랑수아 파브르의 사위들(총사령관이던 아미 페랭과 소의회 위원이던 피에르 티소(Pierre Tissot))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후 가스파르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당분간 주네브에 돌아오지 않으며 치리회의 소환에 불응하는 행보를 지속했다.

16) 볼링의 기원이 되는 스포츠 오락.

17) *R\_Consist.*, vol. 2, p. 248.

프랑수아와 가스파르에 이어 치리회와 문제를 일으켰던 파브르 가문의 세 번째 인물은 바로 프랑수아의 딸이자 아미 페랭의 아내인 프랑수아즈이다. 1546년 3월 앙투안 렉트(Antoine Lect)의 딸 미에(Mie)와 클로드 필립(Claude Philippe)이 결혼했는데, 치리회는 이들의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모여 춤을 췄는지를 놓고 오랫동안 진상규명을 벌였다.<sup>18)</sup> 렉트 가문과 필립 가문은 모두 주네브의 명문가에 속했으므로 이들의 결혼식엔 도시의 유력자들이 다수 참석했고, 결과적으로 내노라하는 주네브 토박이들은 모두 치리회에 불려가 결혼식장에서 춤을 췄는지 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중 하나였던 프랑수아즈 페랭은 “아버지 같은 분은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처리해드릴 필요가 있었다”면서 치리회의 처신이 냉정했다고 불평했고, 자기 역시 “아버지의 대의를 따르고자 한다”며 “우리에게 훈계를 하는 이들은 도시와 어떤 관련도 없는 사람들” 이고, “여기서 조사를 받기보다 법원에서 말하는 편이 낫겠다”고 주장했다.<sup>19)</sup> 프랑수아와 가스파르, 나아가 프랑수아즈까지 파브르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칼뱅과 치리회를 폄하하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파브르 가문, 나아가 주네브의 토박이 유력자 가문들과 치리회 사이의 갈등은 한층 심화되었다.

그렇지만 치리회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 주네브에서 춤과 저속한 노래는 3일간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춤이 풍기문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성적 문란함을 촉진한다는 칼뱅의 의견을 반영한 1547년 조례를 근거로 한다.<sup>20)</sup> 그러나 실제로 춤을 췄다는 이유로 구류를 사는 일은 거의 없었고, 일반적으로 경고를 받는 정도로 가볍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프랑수아즈의 발언에 자극받았기 때문인지, 치리회는 주네브 사법당국에게 렉트 가문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춤 사건을 심각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십여 명의 유력자들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1546년 4월 16일, 주네브 법원은 혼주 부부와 신랑 신부를 비롯하여 현직 행정장관(A. Corne) 부부와 아미 페랭 등에게 모두 3일간의 구류를 명했고, 특별히 죄질이 더 나쁘다고 여긴 프랑수아즈에게

18) 칼뱅과 치리회는 춤을 풍기문란과 성적 일탈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결혼식과 마을 축제 등에서도 이를 엄격히 금지해왔다. Jeffrey R. Watt, *The Consistory and Social Discipline in Calvin's Geneva* (Boydell & Brew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20), pp. 114-116.

19) *R\_Consist.*, vol. 2, p. 190.

20) Jeffrey R. Watt, *The Consistory and Social Discipline*, p. 115.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 은 왜 실패했나?

는 6일 구류를 선고했다.<sup>21)</sup>

칼뱅과 파브르 가문 사이의 갈등 양상을 정리해보면, 가장 프랑수아 파브르는 성적 방종과 간통으로, 아들 가스파르와 딸 프랑수아즈는 오락과 춤으로 징계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의 행동은 종교개혁 이전 주네브에서는 적당히 용인되거나 심지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행동이었을 것이다. 프랑수아 파브르가 후일 칼뱅을 두고 “내가 장례 치른 것을 직접 본 과거 네 명의 주교보다 칼뱅이 자신을 더 많이 괴롭혔다”<sup>22)</sup>고 말한 것은 한편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 그 때문인지 파브르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치리회와 목사들이 이를 논의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치리회의 존재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파브르 집안 사람들의 태도는 칼뱅 등 목사들에게는 심각한 반감을, 그리고 주네브 시민들 사이에는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파브르 가문과 치리회와의 갈등은 아미 페랭을 중심으로 한 칼뱅 반대파, 즉 ‘주네브의 아이들’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후일 프랑수아가 직접 부정했듯 파브르 가문의 갈등이 반란을 선동하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 아래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sup>23)</sup> 그렇지만 1545년 파브르 사건 이후 아미 페랭 본인과 그 주변 지인들은 끊임없이 칼뱅과 목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분란을 일으켰다, 대표적 사건들만 거론해봐도 아미 페랭 본인은 반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고(1547), 동맹파의 ‘순교자’라 여겨지던 베르트리에(Berthelier) 집안 사람들 역시 치리회와 문제를 일으켰으며(1548), 페랭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던 장 트로이에(Jean Troillet)는 심지어 『기독교강요』를 비롯한 칼뱅의 저작과 신학적 관점을 지적하기까지 했다(1552).<sup>24)</sup> 이처럼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페랭은 자연스럽게 칼뱅과 그의 민중규율화 작업에 반대하는 파당, 즉 ‘주네브의 아이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페랭과 ‘주네브의 아이들’은 주네브 토박이들의 민심을

21) *R\_Consist.*, vol. 2, p. 192, n. 466.

22) Henry Fazy, *Procédures et documents* (Geneva & Bale: H. Georg, 1886), p. 31.

23) 같은 책, p. 33.

24) Monter, *Calvin's Geneva*, pp. 74-82.

그대로 반영하는 집단이었을까? 아니면 주네브 토박이들이라 해도 페랭파의 주장과 태도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았을까? 이를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도시의 주인이 자신들이라 여기던 토박이 페랭파와 이방인 칼뱅이 중심이 된 치리회 세력인 칼뱅파는 1540년대 중반부터 주교지파와 동맹파, 베른지파와 중도파 뒤를 이은 주네브의 새로운 파벌로 부상했고, 이들의 갈등은 향후 10년간 주네브 정치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런데 1550년대부터 주네브의 일상을 뒤집어놓은 새로운 현상이 등장, 페랭파와 칼뱅파의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주네브 거주민들과 이주민 사이 벌어진 또 다른 차원의 갈등, 즉 16세기 주네브의 ‘제노포비아’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Ⅲ. 16세기 주네브의 제노포비아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 주네브는 인구 만 명 정도로, 일년에 네 번 열리던 정기시(fair)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국제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지는 못했던 지역색 강한 도시였다. 그러나 주네브에서 외국인이 시민권을 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고, 실제로 1501년에서 1536년까지 1112명의 외국인이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의 프랑스어권 지역(사부아, 페이 드 보, 부르고뉴)에서 온 사람들로, 프랑스 본토 출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종교개혁 이전 주네브에 유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주네브와 가까운 지역 출신으로 주네브 거주민들과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칼뱅의 주네브 정착과 개혁교회의 설립은 이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1549년 경부터 주네브에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안전지대를 찾아 나선 수많은 난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주민 중에는 프랑스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탈리아인, 영국인, 독일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칼뱅과 목사회는 이들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해 설교할 목사들을 고용해야 했다.<sup>26)</sup> 그리고 특히 그 수

---

25) 같은 책, pp. 1-4.

26)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특별 예배는 1551년부터, 그리고 이탈리아인 목사는 1552년부터 활동했다. 또한 1555년 영국인과 이탈리아인을 위한 별도의 예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가 많은 프랑스 출신 난민들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일종의 복지기금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기금(Bourse Française)을 운영하기도 했다.<sup>27)</sup> 더불어 주네브 시당국은 상당수 난민들에게 주네브 시민권을 판매했는데, 이렇게 시민이 된 사람의 수가 1549년부터 1551년에 이르기까지 단 3년간 122명에 달했다.<sup>28)</sup>

155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난민으로 인해 주네브 거주민들과 이주민 사이의 불화는 점차 늘어났다. 16세기 주네브는 요새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였고, 원래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이주민이 4~5년만에 갑자기 유입되었기 때문에 분란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1550년대 치리회 회의록에는 주네브 거주민들이 이주민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소환당했다는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1550년 3월 20일, 로이 반디에르

혼계를 위해 소환됨. 15일쯤 전에 대녀의 세례식에서 아이를 안고 세례를 받는 와중에, “저 빌어먹을 설교자들, 자기들 재산을 말아먹고 자신들 나라도 말아먹은 뒤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여기 온 거지” 라고 말했는지 질문받음. 그는 이를 부정함. 단지 아이 이름을 위긴이라고 짓고자 했는데 목사가 유디트라고 지었다고 주장함.<sup>29)</sup>

1550년 3월 27일, 버트람 로이, 귀족 아르니 오베르의 하인

반디에르의 대녀이자 피에르 베르지에의 딸 세례식에 대한 질문을 받음. 피에르 베르지에가 딸을 안고 거리를 다니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증언함. “이런 외국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 “제발 악마가 외국인들을 다 잡아가 버렸으면! 자기가 믿는 빵 귀신에게나 가버리라지!”

1550년 3월 27일, 자크 르 네브, 의사

---

배당 건물이 배정되기도 했다.

27) 1550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28) 1553년과 1554년 페렝파가 시의회 실권을 장악하면서 한 해에 단 7명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급격하게 엄격해졌다가, 1555년 칼뱅파가 실권을 잡자 1년간 43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들이 현실적으로 칼뱅의 지지세력이 되는 것은 당연했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네브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은 1555년 페렝파 폭동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Watt, 'Introduction,' in *R\_Consist.*, vol. 10, pp. xiii-xiv.

29) *R\_Consist.*, vol. 5, p. 30.

베르지에에 대한 위 증언이 맞다고 증언함. 더불어 마티유 카나르의 딸 마르틴 발라르가 로이 반디에르와 함께 “저주받은 프랑스놈들, 자기 나라에 가서 빵 귀신이나 먹으라지!” 라고 말했다고 증언함.<sup>30)</sup>

해당 사건은 로이 반디에르라는 주네브 유력인사가 동료인 피에르 베르지에의 딸의 대부가 되어 세례식에 참가했을 때 목사에게 신성모독적인 거친 말을 썼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피에르 베르지에 역시 세례식 후에 거리에서 이주민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당시 주네브에서 벌어졌던 외국인 혐오와 칼뱅 등 목사들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반감이 결합되어 나타난 전형적인 제노포비아 사례라 할 수 있다. 1550년대 주네브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외국인 혐오는 프랑스인을 이단과 등치시킨 욕설을 외국인의 면전에서 내뱉는 것이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빵 귀신(Dieux de pâte)’으로, 가톨릭교회의 성변화설을 우상숭배라 보았던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에서 파생된 표현이었다. 사실 주네브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인 목사나 이주민들은 대부분 종교적 목적 아래 망명한 신실한 프로테스탄트들이라 그들을 이단 취급하는 이러한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혐오를 지닌 주네브인들은 그들이 종교적 이유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온 사람들이라 폄하했기에 프랑스 난민들을 ‘빵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라든지 ‘마녀의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 부르곤 했다.<sup>31)</sup>

그리고 이 욕설 사건이 세례식 중에, 그리고 세례식이 끝난 뒤에 행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2)</sup> 흥미롭게도, 1550년대 세례식은 주네브에서 분란의 중심이었다. 칼뱅과 목사회가 엄격한 성경중심주의 신념에 따라 주네브 사람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546년부터는 공개적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의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큰 문제가 됐던 대표적 이름이 클로드

---

30) *R\_Consist.*, vol. 5, p. 38.

31) *R\_Consist.*, vol. 5, p. 52.

32) 인용한 사건의 경우 반디에르의 딸은 ‘위긴’이라 이름 붙이고자 했으나 ‘유디트’라는 이름이 주어졌다고 한다. 이는 조금 이상한데, ‘위긴’이라는 이름은 금지된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Claude), 발타자르(Baltazar), 그리고 가스파르(Gaspard)였다. 클로드는 주네브 인근 출신의 성인 성 클로디우스<sup>33)</sup>의 이름에서 기원한 것으로 주네브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 또한 남성들에게 상당히 흔한 이름에 속했던 발타자르와 가스파르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동방박사의 이름이라며 역시 금지되었다.

16세기 주네브에서 대부/대모가 된다는 것은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는 행동이라 유력 가문에게는 중요한 연줄 형성의 기회였다. 그런데 주네브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유럽 지역에서는 대부/대모의 이름을 따라 대자/대녀의 이름을 짓는 관례가 있었다. 더 이상 클로드와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면, 주네브의 수많은 클로드와 발타자르, 그리고 가스파르들은 세례식에서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주네브 사람들은 이에 반발하며 분란을 일으켰고, 이는 심지어 폭동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sup>34)</sup>

그런데 위 사건을 일으킨 로이 반디에르와 피에르 베르지에는 모두 유력 가문 소속의 인물들이었다. 로이 반디에르는 과거 행정장관이자 총사령관이었던 아미 반디에르(Ami Bandière)의 아들이자 당시 칼뱅과 수없이 분란을 일으키던 핵심 인물 베르트리에 가문과 사돈지간이기도 했다. 세례식 뒤 길에서 프랑스인에게 욕설을 한 마르틴 발라르 역시 과거 행정장관인 장 발라르의 딸이었다. 이들의 조건을 고려할 때, 목사가 배척한 세례식 중이나 후에 욕설을 하는 도발적이고 과격한 행위는 이주민 출신 목사를 불신하고 치리회의 권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네브의 아이들’과 당당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치리회 회의록에 따르면, 주네브의 아이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주네브 거주민들의 외국인 혐오 사례 역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51년 8월 27일, 장 코르투, 약재상

고객이자 의사인 기욤 생-라비와 함께 가게에 있었는데, 우연히 마카테

33) 성 클로디우스(607?-696 or 699)는 7세기에 활동한 인물로 브장송의 주교이자 쥐라(Jura) 근처에 위치한 콘다(Condat) 수도원의 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주네브 근처에서 매우 인기 높은 성인이었다.

34) W. G. Naphy, “Baptisms, Church Riots and Social Unrest in Calvin’s Geneva,”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6-1(1995), pp. 87-97.



부인의 유모가 아이를 안고 가면서 음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됨. 자신과 의사 생 라비는 유모에게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좋은 말로 경고했지만, “프랑스놈들”이라는 욕만 들었다고 증언함.

기욤 네이, 약재상의 하인

주인집 가게 앞에서 주인과 손님이 유모와 옥신각신하는 것을 봄. 유모는 그들에게 “프랑스 양반님들,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복음에 대해 훨씬 잘 아는걸요.” 라고 말했다고 전함. 이후 자신이 이름을 잘 모르는 주네브인 두 명이 더 찾아와 시끄럽게 떠들었으나 그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sup>35)</sup>

위 인용문을 보면, 그저 유모에 불과했던 주네브 여성도 프랑스인 의사와 약재상의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들먹이며 받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유모 역시 단순히 이주민에 대해서만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사와 치리회에 대한 거부감 역시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치리회 회의록에서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남아있으므로, 프랑스인을 비롯한 외국인 난민에 대한 반감은 주네브 거주민들 사이에서 나름 널리 퍼져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세례식 사건과 유모 사건 모두 모욕을 당한 프랑스인들이 의사나 약재상 등 전문직업인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네브로 이주해 자리 잡은 프랑스인 중 상당수는 법조인, 의사, 인쇄업자, 또는 금세공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주네브의 평범한 서민들이 새롭고 낯설며 부유하고 세련된 이방인들을 불편하게 여겼을 가능성은 꽤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평범한 주네브인들이 어색한 외지인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서 이것을 페랭파에 대한 적극적 동조라 해석할 수 있을까? 작은 도시에 거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서 오는 번거로움은 상당했을 것이며, 더구나 이주민들이 언어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그들에 대해 탐탁지 않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1550년대 주네브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반감과 혐오를 표출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페랭파에 대한 지지라 해석할 수는 없다. 실제로 페랭파는 주네브인들의 외국인혐오가 한창이던 1555년 급작스럽게 몰락했다. 따라서 거주민들이 이주민들을 낯설어하며 불편해하는

---

35) *R\_Consist.*, vol. 6, pp. 156-157.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현상과 혐오의 감정을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어 특정 파벌을 지지하도록 선동하는 작업을 동일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페랭과 몰락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 IV.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행정관들은 프랑수아 파브르에게 프랑스인들에 대해 왜 반감을 가지게 되었냐고 물었다. 파브르는 그들에 대해 어떤 반감도 없으며, 단지 그들이 프랑스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했다. (중략) 프랑수아즈 페랭도 같은 날 심문을 받았다 그녀는 무척 괴로워했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행정관은 프랑수아즈에게 구속당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아버지와 자신이 수감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마음이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프랑수아즈는 자신이 구속되었을 때 “우리의 권리(les Franchises)는 어디로 갔는가?” 라고 소리쳤던 것은 기억난다고 했다.<sup>36)</sup>

1547년 9월, 칼뱅의 치리회와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중이던 프랑수아 파브르는 자신의 딸 프랑수아즈 페랭, 그리고 사위 아미 페랭과 함께 주네브 법원에 의해 체포, 수감된다. 아무리 프랑수아 파브르가 주네브 제일의 유력자 중 하나라 해도, 파브르와 치리회가 수년간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치리회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파브르의 행태는 주네브 사법당국으로서도 큰 부담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프랑스와 외교 협상을 하고 돌아온 아미 페랭이 프랑스 왕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는 풍문이 퍼졌다. 이는 반란의 혐의라 의심받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고, 주네브 사법당국은 결단을 내려 동맹과 시절의 호결과 현직 도 지방위군 총사령관 부부를 동시에 기습적으로 체포하기에 이른다.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프랑수아 파브르는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고, 치리회가 주네브의 시민들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의 딸 프랑수아즈가 체포 당시 말했던 것처럼, 파브르 집안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주네브 시민으로서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정당한 권리의 훼손이라 해석했다. 즉 치리회란 주네브와 전혀 무관한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초법적 조직이라는 것이다. 파브르 가문

36) Henry Fazy, *Procédures et documents*, p. 29.

의 시선에서 보자면, 치리회가 춤이나 노래를 규제하거나, 전통적으로 주네브에서 사용해오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낯선 외국인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오는 것에 거부감과 반감을 느낀 모든 주네브 사람들은 모두 파브르 가문의 의견에 동조하고, 페랭파의 대의에 공감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칼뱅과 치리회는 엄격한 규율을 내세워 주네브인들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 폭군들이며, 프랑수아 파브르를 비롯한 페랭파 유지들이 이들에게 시민적 권리를 유린당한 순결한 피해자에 불과한가? 현실은 사실 이와 많이 달랐다. 무엇보다도 프랑수아 파브르가 유부녀를 포함한 하녀들 최소 두 명을 임신시켰고, 그의 호색함에 질린 부인이 집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간통은 주네브에서 종교개혁 이전에도 심각하게 다뤘던 사안 중 하나였다. 또한 성적 문란은 원래 교회법에 속했던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종교 기관이던 치리회가 이를 담당하는 것 역시 그다지 큰 변화라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프랑수아 파브르가 치리회에서 보인 적대적이고 불손한 태도는 억압적 권위에 대해 저항하는 주네브 독립 영웅의 행적이라기보다 부인과 하녀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고집 세고 오만한 독선적 가부장의 행패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칼뱅이 주네브로 귀환하기 위한 조건이었으며, 주네브 시의회와 법원의 승인을 받았고, 이미 1541년부터 존재해왔던 치리회의 권위를 전면 부정한 파브르 가문의 처신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기보다 극소수의 유력자들만 지닐 수 있는 특권을 남용한 결과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파브르 가문의 행태뿐만 아니라 페랭파에 대한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페랭파를 주네브 토박이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파벌이라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페랭파는 파브르(Favre), 티소(Tissot), 셉트(Sept), 방델(Vandel) 가문 등 8개 정도의 유력 가문이 결혼과 사업을 통해 겹겹이 연결된 상당히 폐쇄적인 별족 집단이었다.<sup>37)</sup>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주네브 시민들은 칼뱅과 치리회에 대한 거부감보다 오히려 페랭 세력의 확장과 그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전횡을 더 우려하였던 듯하다. 실제로 동시대 주네브의 역사를 기록했던 프랑수아 보니바

37) 페랭파와 칼뱅파의 구성과 성장에 대해서는 박효근, 「주네브, 유토피아를 꿈꾸다」, 62-66쪽.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르(François Bonivard, 1493-1570)는 1555년 선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선거 유세에 활용되었다고 기록하였다.<sup>38)</sup>

메츠의 경우처럼  
같은 집안 사람들로 의회를 채워놓으면  
그것이야말로 확실하게  
노예가 되는 방법<sup>39)</sup>

이를 통해 페랭파가 몰락한 1555년 선거의 핵심 논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나 치리회의 월권이 아니라 페랭파가 주네브의 정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견제심리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주네브 시의회 선거는 직접선거가 아니라 기존 200인회 위원들이 다음 회기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주네브 정치에 대한 경험을 이미 지니고 있던 위원들에게 페랭파의 독식은 훨씬 더 중차대한 현안일 수 있었다. 위원들 역시 이주민들에게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랭파를 지지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페랭파가 유서깊은 토박이보다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부도덕한 이권 집단이라 지목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런 정서를 퍼트린 것은 페랭파와 대립한 칼뱅파, 그중에서도 특히 칼뱅 자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종교개혁 시대 주네브의 사회변동에 대해 고찰한 내피에 따르면, 칼뱅은 “주네브 길거리에서 명예와 신의를 아는 존재는 개들 뿐”이라 말할 정도로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내피는 칼뱅파가 선거에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1553년과 1554년, 칼뱅의 설교가 특히 공격적이고 격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40)</sup> 이를 통해 칼뱅파에게는 페랭파는 갖지 못한 막강한 무기, 즉 ‘소통’의 힘을 지니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칼뱅은 실제로 주네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발언자였다. 칼뱅파 치리회가 주창한 종교개혁적 삶의 원리는 매주 두세 번씩 열렸던 목회의 설교를

38) Monter, *Calvin's Geneva*, p. 85.

39) François Bonivard, *Advis et devis de l'ancienne et nouvelle police de Genève* (Geneva: J.-G. Fick, 1865), p. 116.

40) Naphy,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pp. 156-158.

통해, 매주 목요일에 열렸던 치리회 회합을 통해, 그리고 수시로 행해졌던 목사회의 가정방문을 통해, 어린이들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되었던 교리문답을 통해 끊임없이 주네브 사람들에게 주입되고 있었다. 주네브 사람들이 칼뱅의 교리를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실천했던 것은 물론 아니며, 무수한 전유와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적 신앙과 사회의 본보기를 제시한 칼뱅의 종교적 지침은 전통의 로마가톨릭교회가 사라진 주네브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칼뱅의 설교는 자연스러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페랭파는 오랫동안 리베르탱, 즉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느슨한 집단이라 규정되어왔다. 그렇지만 실제로 페랭파가 칼뱅파보다 특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볼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페랭파에 대한 이러한 낙인은 동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네브 종교개혁 시대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은 비교적 칼뱅의 시각에 따라 편향적으로 해석되고 통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sup>41)</sup>

그러나 막강한 현실적 권력을 지니고 있던 페랭파가 단순히 상대 파벌의 견제심리와 프로파간다 창출 능력에 말려 몰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주네브에서 파벌 사이 갈등과 싸움은 아주 빈번한 일이었고, 한번 특정 파벌이 패배해 축출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다시 화해하고 다시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빠른으로 망명한 페랭파 역시 얼마 후에 주네브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네브에는 이미 페랭파를 대치할 새로운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도시로 몰려든 각양각색의 난민들이었다. ‘난민’이라는 개념이 지닌 여감과는 다르게, 그들 중 상당수는 꽤 넉넉한 자본과 특화된 기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2)</sup> 페랭파를 몰아낸 뒤 부족해진 인적, 물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칼뱅파가 중심이 된 주네브 시당국은 이주민들에게 시민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시

41) 각주 4번 참조.

42) 1550년대 주네브로 이주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수선공, 금세공사, 직조공, 상인, 인쇄업자, 서점상, 그리고 귀족들이라 기록되어 있다. Monter, *Calvin's Geneva*, p. 5.

##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민권을 매개로 끌어들이는 이주민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주네브는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주민의 유입을 통해 주네브는 단 하나의 특화된 수출품도 없었고 한 사람의 은행가도 없었던 도시의 고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네브는 이주해온 전문직 수공업자들의 주도 아래 155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출용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sup>43)</sup> 결과적으로 주네브의 아이들은 특권에 집착하는 폐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들을 대체할 새로운 인적 자원이 존재했으며, 나아가 칼뱅과 개혁교회라는 정신적 대안의 힘을 무시한 결과 실패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 V. 나가며

1559년 8월 10일

에티엔 드 바티스타의 아들과 로이 클레르크의 부인 자크마에 대한 증언

마르그리트(에티엔 바로이의 부인), 장 다비드(마르그리트의 하인), 로베르 물랭, 자크 바로이 등은 에티엔 드 바티스타의 아들의 행동에 대해 다음 증언을 제출함. 바티스타의 아들은 다비드를 향해 손가락을 꼬아 십자가 표식을 만들면서 성모마리아를 거론하며 욕설을 함. 이에 다비드가 항의하자 자크마가 끼어들어 다음과 같이 말함. “너희들 나라로 좀 꺼져버려. 갈 때 악마도 같이 데려가길 바라.” 이에 자크 바로이와 다비드가 뭐라고 말했나고 되물으며 다시 항의하자 바티스타의 아들은 “네 앞일이나 걱정해. 똑같이 되갚아줄 필요는 없어” 라고 말했음. 바티스타는 자신이 이런 말을 했음을 인정했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함. 반면 자크마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며 인정하지 않음.

의견: 자크마는 성찬을 금지하며, 바티스타는 엄중히 경고함. 자크마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보내 정식으로 벌을 받게 될 것임.<sup>44)</sup>

위 인용한 사건에서, 바티스타와 자크마는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다비드를

---

43) 16세기 개발된 주네브의 대표적 수출상품으로 서적과 견직물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쇄업과 견직물 산업을 처음 도입하고 투자, 발전시킨 사람들은 대부분 망명자 출신이었다. Monter, *Calvin's Geneva*, pp. 178-183.

44) *R\_Consist.*, vol. 15, p. 269.

향해 신성모독적 욕설을 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힐난하는 등 전형적인 외국인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3장에서 기술한 토박이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신공격 내용과 거의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날짜이다. 이 사건은 페랭파가 축출되고 칼벵파가 전권을 잡은 뒤 이미 5년이나 지난 1559년에 벌어졌다. 즉 페랭파가 추방된 뒤에도, 칼벵파가 주네브의 시정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도, 주네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혐오가 남아있었고,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 갈등과 분란은 해결되지 못했다. 칼벵파가 장악한 주네브라 해도, 여전히 칼벵이 꿈꿨던 질서정연한 신의 도시로 거듭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네브는 155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보했다. 토박이 별족 세력 페랭파를 몰아낸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망명자 출신 이주민이었고, 그들은 원주민들의 텃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네브로 모여들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냈다. 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자금으로 주네브는 베른에서 빌린 채무를 모두 해소했고, 결과적으로 베른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 리옹의 등장으로 열세에 처한 정기시의 지분이 줄어드는 대신, 이주민들의 기술도입으로 인해 새롭게 융성한 인쇄업과 견직물산업이 크게 흥하여 주네브는 서적과 견직물이라는 새로운 수출품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주네브에는 칼벵 신학을 가르치기 위한 신학교가 건립되고, 이주민들의 기술력에 힘입어 세계 최초의 시계생산자 길드가 설치되는 등 국제적이고 학술적인 도시로서의 주네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네브의 모습은 바로 이 시점부터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거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토박이 세력의 텃세, 특권집단에 대한 신흥세력의 프로파간다 형성, 대중 사이에 퍼진 제노포비아 등 16세기 주네브에서는 이주의 역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거의 모두 만개하였다. 그러나 주네브에서는 일반적 통념과 다르게 이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었고, 이주민들과 연대한 원주민들이 변화를 거부하던 토박이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듯 16세기 주네브의 역사적 경험은 이주민들이 지닌 가능성과 역량을 기꺼이 인정하고, 불편하고 번거로우지 몰라도 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유연성을 지닌 세력이 승리할 때 오히려 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nusquam@naver.com)

키워드(Key Words)

주네브(Geneva), 종교개혁(Reformation), 페랭파(Perrinists), 칼뱅파  
(Calvinists), 제노포비아(Xenophobia)

투고일: 2024. 4. 10. 심사일: 2024. 5. 12. 게재확정일: 2024. 5. 13.



<국문 초록>

##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박효근

주네브 종교개혁 과정에서 1555년의 폭동과 이로 인한 페랭파의 몰락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칼뱅의 지도 아래 확고한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된 주네브에는 1550년대부터 종교적 이유로 망명을 선택한 유럽 전역의 난민들이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주네브 거주민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주민들이 도시에 유입되었다. 몰려든 이주민들로 인해 주네브 거주민들의 감정적 반감과 경제적 부담이 상승하면서, 당시 주네브에서는 제노포비아 현상이라 할 만한 외국인혐오가 만연하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박이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던 페랭파는 1555년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그 이후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로 몰려 주네브에서 추방당해 버린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페랭파는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그리고 1550년대 주네브의 제노포비아는 과연 페랭파의 정치적 득세를 이끌 배경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 페랭파는 자신들을 토박이 세력의 대표로 인식시키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폐쇄적이고 특권의식에 가득찬 별족으로 몰리며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설교와 목회, 교리문답과 치리회 소환 등을 통해 주네브의 소통망을 장악하고 있던 칼뱅파는 페랭파의 이미지를 이렇게 재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나아가 주네브에 이주한 난민들은 상당한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전문가들이었기에, 축출한 페랭파의 빈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었다. 따라서 1555년 페랭파의 몰락과 칼뱅파의 승리는 칼뱅파가 내세운 것처럼 종교적 차원으로 해석되기보다, 파벌 사이의 갈등과 대안 세력의 존재라는 정치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 **Natives and immigrants: Why ‘Enfant de Genève’ Failed**

Park, Hyogeun

The riots of 1555 and the subsequent fall of the Perrinsts in the course of the Reformation of Geneva are hard to explain. Having become an established center of the Reform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Calvin, the city had been hosting refugees from across Europe seeking asylum on religious grounds since the 1550s, bringing nearly half of the city’s inhabitants into the city. The influx of migrants increased the emotional antipathy and economic strain on the city’s residents, leading to a widespread xenophobia in the city. Despite this, Perrinsts who defended the interests of the natives and stirred up resentment against immigrants, was defeated in the 1555 elections and was accused of masterminding the riots that followed, leading to his expulsion from the c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ovide a convincing answer to the question: how can we explain this situation? To do so, I examine how the Perrinsts Party was formed and whether the xenophobia of the 1550s in Geneva was indeed the backdrop for its political rise. In my view, the Perrinsts failed to present themselves as representatives of the natives of Geneva, and portrated rather as closed-minded and privileged bees, which led to their electoral defeat. The Calvinists, who dominated the communication networks of Geneva through their preaching, pastoring, and catechisms, played a large role in this reconstruction of this negative image of the Perrinsts.. Furthermore, the refugees who arrived in Geneva were professionals with considerable skills and capital, and they were able to fill the void left by the ousted Perrinsts. Therefore, the fall of the Perrinsts and the victory of the Calvinists in 1555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ligious, as the Calvinists claimed, but rather as political: a conflict between factions and the emergence of an alternative power.

## 참고 문헌

### 1. 사료

- Bonivard, François, *Advis et devis de l'ancienne et nouvelle police de Genève* (Geneva: J.-G. Fick, 1865).
- Fazy, Henry, *Procédures et documents* (Geneva & Bale: H. Georg, 1886).
- Roget, Amédée, *Histoire du peuple de Genève depuis la réforme jusqu'à l'escalade* (Geneva: John Julien, 1881).
- Watt, Isabella M, Thomas A. Lambert (vols. 1-5), Jeffrey R. Watt (vols. 6-17), and M. Wallace McDonald (vols.2,9), eds.,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Geneva: Droz, 1996-2023).

### 2. 단행본

- Kingdon, Robert and Thomas A. Lambert, *Reforming Geneva: Discipline, Faith and Anger in Calvin's Geneva*. (Geneva: Droz, 2012).
- Monter, E. W., *Calvin's Geneva* (Huntinton: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5).
- Naphy, William,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Watt, Jeffrey R., *The Consistory and Social Discipline in Calvin's Geneva* (Boydell & Brew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20).

### 3. 논문

- 박효근, 「주네브, 유토피아를 꿈꾸다」, 『서양중세사연구』, 46(2020), 45-73쪽.
- 박효근, 「칼뱅 종교개혁 시대 주네브 사람들의 결혼과 이혼」, 『서양중세사연구』, 39(2017), 173-202쪽.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

- 박효근. 「칼뱅 종교개혁과 민중규율화의 실체: 1555년 주네브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41(2018), 41-69쪽
- Naphy, W.G., “Baptisms, Church Riots and Social Unrest in Calvin’s Geneva,”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6-1(1995), pp. 87-97.